부산 불자, 삼귀의계·오계로 새롭게 서다

'제9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
조계종부산연합회, 10월 10일 개최
1500여 명 "계 지키는 불자로 성장"

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봉행한 '제9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에는 1500여 명이 동참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1500여 명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계율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10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불자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청정한 승가에 귀의하고 오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충(忠)과 효(孝)를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법회는 부산 지역의 대덕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석의 의미를 더했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대율사(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 법미 대율사(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 효명 대율사가 3사(三師)를 맡아 청정 계율을 내렸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도일·하림·지일·정관·덕림·성광 율사 등 7명의 스님은 존증아사리로 등단해 수계 제자들의 서원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법어에서 "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를 지키려는 실천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심과 원력, 수행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수계자들의 앞날을 축원했다.

갈마아사리 심산 스님은 "수계를 받는 데서 나아가 계를 지키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받은 계가 불자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수아사리 원허 스님은 "계는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라며 수계를 통해 받은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 동참자들에게는 축하를, 행사 준비에 힘쓴 스님들과 관계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며 "그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수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계대법회의 주제는 충과 효"라며 "충과 효를 새롭게 일깨우고 실천해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 모두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홍법사, 선명상센터 기공…"마음 평안 앞장"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기공식 개최
90평 규모 2층, 내년 3월 완공 목표


부산 홍법사가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

부산 홍법사가 시민들의 마음 치유와 선명상 수행을 위한 선명상센터 건립에 나섰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10월 11일 선명상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산 스님을 비롯해 한국선명상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 양재생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부산지사장 등 지역 교계 및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하는 선명상센터는 90평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선명상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선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법사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고귀한 뜻을 이어 온 세상을 밝히고 평안으로 회향하고자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건물을 보존하는 것보다 창건주의 뜻이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센터가 시민들에게 평안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 모으는 단결이 필요하다"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선명상협회 공동대표 정혜 스님은 "선명상센터 건립 소식을 접하고 부산에서 많은 이들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 도량을 찾아 수행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공식에 이어 홍법사 대광명전에서는 청솔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청솔합창단은 이날 '님의 소리', '귀의하는 마음' 등을 선보였으며, 조민정 씨의 피아노 연주와 앵콜곡 '인생은 60부터야'가 이어졌다. 음악회는 주지 심산 스님과 참석자들이 함께 '바람부는 산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영도서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한국불교문화협회, 10월 13일
부산 발원사 특설무대서 개최


도회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물과 육지를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법석이 부산 영도에서 열렸다.

(사)한국불교문화협회(이사장 호법 스님)는 10월 13일 부산 영도 발원사에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5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

행사는 부산불교어산회의 시련(侍輦)과 취타대 공연, 영가를 자리에 모시는 삼보례 및 안좌게로 시작됐다. 이어 개식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합창단 단원의 육법공양이 진행됐다.

영가법문에서 정여 스님은 "삶과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원망과 아쉬움 또한 무상의 바람 앞에 흩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법이니 본래 부처요 청정한 존재임을 깨닫는 찰나에 무명의 사슬을 끊고 반야용선에 올라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한다"고 법문했다.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은 "시방법계 오탁악세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모든 영가와 바닷속 수중영가, 땅속에 묻힌 영가들을 위해 부처님 법력으로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며 "이 법회의 공덕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중생이 재앙을 여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영도는 수많은 사람의 애환을 품어온 공간"이라며 "먼저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륙재는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김해 태국사찰 불자들의 공연과 인도인 스레스타만달 양, 국제다문화학교 학생 아프린 양의 공연이 펼쳐졌다. 미룡사 합창단과 BTN합창단이 '민들레 미소', '아리랑', '나무대성인로왕보살' 등의 음성공양으로 영가를 위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안국사, 전법도량 '발돋움'

10월 10일, 삼존불 · 후불탱 점안
"불성 꽃피우는 도량으로 도약"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후불탱을 장엄해 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삼존불과 후불탱을 봉안하고, 도심 속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발돋움할 것을 발원했다.

안국사는 10월 10일 4층 대법당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석가모니불을

주지 영산 스님은 "지난해 3월 제3대 주지로 부임한 이후 신도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가꾸는 데 힘써 왔다"며 "불교대학과 선명상, 다도, 합창단 등을 마련하고 대법당 불단 장엄과 신중단 조성, 원불과 인등 봉안 등을 추진해 오늘의 불사를 성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산 스님은 "도심 포교당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힘쓰고,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영산 스님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신심으로 짧은 기간에 불사를 성취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국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불성의 꽃을 피우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앞으로 도량을 더욱 알차게 가꿔 창원을 넘어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도량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반야사 1기 불교대학 입학식

10월 11일, 신입생 35명 입학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는 10월 11일 대웅전에서 제1회 '그냥 그대로'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하고, 신입생 35명과 함께 불교 교리와 명상 수행을 통한 마음공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지 혜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사를 이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대학을 열고자 하는 염원을 품어 왔다"며 "오늘의 결실은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과 많은 분의 정성이 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그대로'라는 말에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불교적 지혜가 담겨 있다"며 "오늘의 입학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대학장 경문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나 실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교리를 배우는 것과 기도·명상 등 실천 수행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불교 공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냥 그대로' 불교대학은 1년 2학기, 총 30주 과정으로 매주 2시간씩 불교 교리와 명상, 선화 그리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0회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10월 5일, 김해문화의전당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10월 5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찬란한 가야, 빛나는 김해'를 주제로 제10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최은희 안무가의 '고요의 파문' 공연에 이어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이 '모든 사람이 한때 나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해 보라'를 주제로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전했다. 2부 '국악의 향연'에서는 '금관가야의 태평성대'를 주제로 창작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이사장 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과 맑은 자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명상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명상을 통해 발견한 맑고 밝은 에너지가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는 1부 '탄생 & 고요한 움직임'과 2부 '국악의 향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주석 스님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10월 13일, 세종청사 법문



대운사 주지이자 쿠무다·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석 스님이 10월 13일 세종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에게 불교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했다.

주석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의 의미를 현대인의 삶에 맞춰 설명했다. 스님은 "타인에게 베풀기 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자비와 나눔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 원칙을 지키는 지계바라밀과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승화하는 인욕바라밀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특히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청사 법문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각회 법회에 이은 주석 스님의 지속적인 전법 활동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지역 어르신 '무료 효 관광'

10월 3일, 남해 해수욕장으로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견강암 주지)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했다.

정각원은 10월 3일 제5회 사상구 관내 어르신 무료 효(孝) 관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숙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적적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다.

행선지는 경남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이며 부산 관내 거주하는 73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번 나들이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각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45인승 관광버스 13대를 동원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돕기 위해 정각원 소속 봉사회원 60여 명이 동행해 봉사했다.

부산정각원 이사장 향공 스님은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